

여성 만화팬들의 ‘야오이물’ 읽기 : PC통신 만화동호회 회원들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노 수 인 (이화여대 석사과정)

남 은 지 (이화여대 석사과정)

I. 무엇을 이야기 하고 싶은가

II. 무엇을 발견했는가

1. Herstories : 인터뷰 대상자들의 특성
2. 여성 만화팬들의 야오이는 무엇인가
3. 여성 만화팬들의 야오이에 대한 태도
4. 왜 야오이를 보는가

III. 연구를 정리하며

I.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90년대 들어 여성만화⁸⁰⁾계에서는 프로, 아마추어 할 것 없이 소재로서 남성들간의 동성애가 유행하고 있다. '동성애'의 사전적인 의미는 '동성끼리 하는 변태적 연애'이며, '변태'는 '본능의 이상이나 정신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변질된 성욕. 동성애, 매저키즘 따위'로 풀이되고 있다.⁸¹⁾ 즉, 동성애는 異性愛를 전통적인 가치로 여기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은 '일탈적'이고 '비정상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나, 만화 속에서의 동성애는 어느 이성애 관계와 마찬가지로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으며, 이를 받아들이는 여성팬들도 별다른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각종 매체들은 여성만화의 이 새로운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다(『씨네21』 1996년 2월 27일; 『시사저널』 1996년 12월 4일; 『뉴스플러스』 1997년 1월 23일; 『TV저널』 1997년 2월 19일; 『BUDDY』 1998년 4월 등). 또한, 만화팬들 사이에서도 동성애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PC통신의 만화동호회에서는 왜 여성만화에는 그리도 동성애자가 많은가, 그리고 하필 그 동성애자가 레즈비언이 아닌 게이들인가에 대한 논쟁이 붙었고(라현숙, 1995), 그러한 논쟁은 대부분 만화 속의 동성애 보다는 동성애 자체에 대한 찬/반 양론(대개 남/녀의 대립과 일치)으로 귀결되었다.

여성만화에서 남성 동성애물은 '야오이⁸²⁾'라고 부른다. 초기에는 남성간의 동성애가 등장하는 모든 만화를 '동성애물'이라고 했지만, 언제부터인가 사실적인 동성애에 기반을 둔 심각한 작품은 '동성애물'로, 비현실적인 미형 남성 캐릭터간의 가벼운 사랑 이야기를 다룬 작품을 '야오이'로 구분하여 지칭하기 시작했다. 최근 창간된 동성애 전문잡지 『BUDDDY』는 야오이가 동성애자의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동성애물이라는 표현은 가급적 피하고 '야오이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겠다.

80) '여성만화'란 여성 작가의 작품을 여성 독자가 주로 향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용어이다(라현숙, 1996a). 통용되는 용어로는 '순정만화'가 있는데, 純情의 사전적인 정의는 '순진한 마음, 참되고 맑은 사랑'이다(박인하, 1995). 그러나, 현재 '순정만화'로 지칭되는 만화들은 그러한 정의 안에 간할 수 없는 유동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성만화'라는 용어를 쓰겠다.

81) 1990년에 발행된 『동아 새국어사전(탁상판)』 참조.

82) 일본에서 시작된 야오이의 어원은 "클라이맥스가 없음(야마나시), 이야기의 완결이 없음(오치나시), 이야기의 까닭이 없음(이미나시)"이다. 즉, 작품의 완결성이 떨어지는 아마추어 동인지 만화를 비아냥거리던 말이 어느새 동성애물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로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여성만화팬들이 야오이물을 즐겨읽는 행위를 단순히 “동성애에 대한 왜곡과 오해에서 비롯된 환상”으로 치부하면 그만일까? 그것이 환상이라고 할지라도 “(대부분 이성애자인) 여성만화팬들이 야오이물을 좋아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PC통신의 여성만화팬들이 일본의 동성애 만화나 소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때로는 창작까지 직접 시도해 보는 현상이 흥미롭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여성만화팬들의 야오이물 읽기’를 하나의 팬덤 현상으로 파악하기 위해 PC통신의 만화모임 회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야오이물은 동성애물이 아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만화팬들은 야오이물을 즐겨 읽는다’는 현상에 도달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야오이물에서 얻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그러한 현상이 여성만화 팬덤 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II. 무엇을 발견했는가

1. Herstories: 인터뷰 대상자들의 특성

인터뷰 대상자들은 전원이 20대의 여성이며, 대부분이 미혼이고 대학 재학 이상의 고학력자들이었다. 이들의 PC통신 경력은 최하 2년에서 최고 9년까지 다양한데, 모두 매일 꾸준하게 통신에 접속한다. 이들에게 만화는 가장 가깝고 친숙한 매체였으며, 컴퓨터 통신이 만화 혹은 야오이 팬덤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매개체로 사용된다. 이들은 현실과 유리된 만화라는 매체의 ‘가상현실’, ‘환타지’의 연장선상에서 자연스럽게 야오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현실의 동성애자들에게 동성애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야오이의 여성팬들에게 동성애는 일종의 ‘도구’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도 동성애물과 야오이물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2. 여성만화팬들에게 야오이는 무엇인가

김선민(mariner) : 최소한 두 명의 남자가 등장, 예쁜 그림, 양념격인 섹스씬(미심쩍은 체위가 다수), 재미있지만 탄탄하다고는 볼 수 없는 스토리를 가진, 작가도 독자도 여성일 수밖에 없는 장르. 동성애 만화와는 다르다.

신상연(ophdia) : 오늘의 나의 정답은 야오이는 가상현실이다. 결국, 내가 없는 세계에서, 내가 알 수 없는 비현실의 남자들이 섹스를 하는 세계다. 사회적 인습은 일단 벗어두고 말야.

인터뷰 대상자들이 내린 정의들은 개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야오이에 대한 대강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현실의 동성애와는 다르지만) 소재로서의 남성 동성애(남-남 애정관계), 여성들의 성적인 즐거움, 여성 장르·문화 등은 그 중요한 키워드로 제시된다. 야오이는 확실히 '여성의 시선'이 드러나는, '여성의,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장르이다.

3. 여성팬들의 야오이에 대한 태도

같은 야오이팬이라고 해도 야오이에 대한 충성도(loyalty)의 정도는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스스로 야오이에 "중독"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볍게 즐기는 흥미물 정도로 취급하기도 한다. 야오이의 여성팬들은 이러한 두 극단 사이에 다양하게 위치하고 있다. 또한, 야오이를 선호하는 태도에 따라 야오이에 대한 충성도가 지속되는 정도도 달라진다. 한 쪽에서는 야오이를 계속 즐겁게 향유하며 관심의 정도를 심화시키는 반면, 이제는 야오이의 정형성, 남성위주의 시선 등에 질렸다는 팬들도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야오이물을 비판하며 야오이물로부터 등을 돌리거나 레즈비어니즘으로 관심을 전환한다.

이처럼 여성들은 야오이물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었으며,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해석 태도를 보여줬다. 야오이의 성적 묘사 정도에 따른 선호도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야오이를 계속 선호하는 팬들은 성적 묘사가 적나라한 '하드' 야오이까지 즐겨 읽지만, 야오이에 대한 선호도가 덜한 경우엔 두 남자간의 감정교류에 초점을 맞춘 '소프트' 야오이를 더 좋아했다. 또한, 기존 만화의 패러디를 더 즐기는 집단과 오리지널 창작 야오이를 더 많이 읽는 집단이 나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보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차별점에도 불구하고 야오이를 좋아하는 여성만화팬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점이다.

4. 왜 야오이를 보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거의 100%가 "재미있다", "즐겁다"를 먼저 대답했다.

사실 대중매체에서 팬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보다 “재미”가 우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만화의 오락적 특성으로 인해 팬들은 만화에 1차적으로 재미를 기대한다. 그러나, 그 “재미”란 것은 상당히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성팬들이 야오이에서 얻는 재미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이 얘기하는 재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인류의 영원한 주제, 사랑과 성 - 관음의 즐거움

여성들이 야오이에서 얻는 1차적인 즐거움은 “관음”으로부터 온다. 야오이 속 인물들이 나누는 사랑을 엿보면서 얻게 되는 쾌락인 것이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 ‘성욕’과 ‘공격욕’을 꼽았다. 대중매체의 해악성을 얘기할 때마다 ‘선정성’과 ‘폭력성’이 거론되는 것으로부터 유추해 보자면, 선정성과 폭력성은 대중매체의 즐거움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일 지도 모르겠다. 사회적으로 여성의 욕망은 감추는 게 미덕이라고 간주되어 왔지만, 야오이의 여성팬들은 자신들의 본능적인 욕구에 충실하고, 또한 당당하다. 결국 야오이의 주제는 ‘사랑’과 ‘성’이다. 어찌 보면, 이러한 특성은 모든 대중매체에 나타나는 인류의 영원한 주제이기도 하다. 야오이에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라 ‘두 남자간의 사랑’이라는 차이일 뿐이다.

그렇다면, 왜 남성들간의 사랑이어야만 하는가? 인터뷰 대상자들은 성적 즐거움을 추구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불편함’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이라는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놓고 충족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색한 일이다. 외부의 직접적인 검열이 없다고 해도 내부적인 제어장치가 가동하게 된다. 강백수(DEVIL)는 이처럼 가부장적인 ‘정조관념’, ‘순결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태도를 “여성들의 이중성”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여성들이 야오이물을 읽으면서 얻는 재미는 단지 관음의 차원에서만 오는 것일까? 그것만이 이유라면, 여성들의 관음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체물이 나타났을 때, 야오이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하지만, 야오이는 지금도 많은 여성만화팬들을 확보하고 있다. 그것이 초기의 인기물이 때처럼 여성만화 전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고 해도, 야오이의 지지세력들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야오이 문화는 이미 독자적인 여성의 문화로서 뿌리를 내린 듯하다. 그렇다면 관음에서 오는 즐거움 외에 무엇이 더 있는 것일까?

여성의 시선으로 세상을 뒤집어보자 - 전복의 즐거움

앞에서 야오이는 여성의 장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대중매체에는 남성적인 시선이 지배적이다. 남성적 시선의 홍수 속에서 야오이를 접한 여성팬들은 묘한 흥분을 느낀다. 야오이에는 기존의 만화 속에서 볼 수 없었던 '전복'적인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동성애'라는 것 자체가 이성애 중심의 사회관행에서 터부시되는 소재일 뿐 아니라, 여성들의 즐거움을 위해 여성적인 취향에 부합하는 남성들이 대거 동원된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그것은 미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여성만화의 '남성상'이 진화하는 것일 수 있으며,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미약하나마) 도전으로도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전복의 즐거움은 여성들이 남성들을 성적으로 대상화시켜 얻는 즐거움이기도 하다. 즉, 여성들은 능동적인 이야기의 주체가 되어 남성을 수동적인 구경거리로 삼게 된다. 지금까지 대중매체 속에서 '객체'로만 존재하던 여성들에게는, 객체를 응시하는 시선의 주인공으로 남성들에게 군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야오이의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 이런 특성에 대해 최서원(mokuren)은 “여자만 굴리냐, 남자도 굴려보자”라는 표현을 썼다. 남성 대상의 포르노그래피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될 뿐이다. 그러나, 야오이는 성인물의 등식처럼 이용되어온 이러한 발상을 간단히 뒤집어 놓았다.

또한, 여성만화에서는 조형적인 아름다움에서 비롯된 시각적인 쾌락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남성 인물들은 여성들의 구미에 맞춰 현실보다 아름답게 묘사되며 중성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이처럼 중성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속칭 '꽃미남'이나 '남장여인'의 존재가 독특한 여성들만의 문화를 대표한다. 특히 야오이에는 필연적으로 남성 인물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으므로 여성들의 탐미적인 성향이 유감 없이 발휘된다. 이런 특성은 여성의 외모가 늘 남성에게 의해 평가되는 현상과는 묘한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여성들은 야오이를 그저 보는 데에서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 자신이 직접 '야오이 텍스트' 혹은 '야오이적인 상황'을 생산하는 위치에 서게 되면서 더 큰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인터뷰 대상자가 '커플링⁸³⁾ 욕구'를 느낀다고 밝혔다. 커플링을 즐기는 여성팬들의 심리 이면에는 어떠한 의미가 존재하는 것일

83) 실제 동성연인 관계가 아닌 남자 두 명을 대상으로, 여성이 둘을 연인관계로 설정해놓고 즐기는 행위.

까? 일단은 여성들이 시선의 주체가 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을 생각할 수 있다. 일본의 후지모토(1991)는 “프로의 상업작품이 아닌 소녀들 자신이 ‘소년애’를 자기표현수단으로 채용한” 현상에 주목하면서, 범하는 측과 범해지는 측이 같은 性인 ‘소년애’의 시물레이션은 소녀 측을 보는 측, 즉 능동적인 위치를 획득하는 것에 차츰 익숙해지도록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추어 동인지의 야오이 패러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Fiske가 말하는 “텍스트적 생산성”에 속한다. 여성들은 기존 텍스트에 나타나는 등장인물 간의 관계를 변형시켜 새로운 스토리를 창조해낸다. 즉, 원전에서의 친구, 라이벌, 선·후배, 상관과 부하 사이를 새로운 관계- 동성연인 관계-로 즐겨 설정한다. Fiske(1992) 역시 “다시 쓰기가 어떤 팬 집단에서는, 많은 영화들의 이성애적 관행을 더 전복적인 동성애적 의미로 바꾸어 놓기도 한다”는 Heffernan의 보고서 내용을 전한다. 또한, 그림을 그리지 않는 팬들도 통신의 만화모임 등에서 패러디 릴레이, 야오이 소설 등을 쓰면서 창작에 참여하게 된다.

사실 야오이의 가장 큰 매력은, 텍스트 자체에서 오는 재미보다는, 여성만화팬들이 (남성 위주의 가부장제 질서에 놓여 있는) 기존의 텍스트와 사회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다는 점에 있다. 여성만화팬들은 야오이를 통해 변화된 시선을 적용하여 대중문화 텍스트를 읽거나 창작하면서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 심지어 ‘노말물’⁸⁴⁾을 읽을 때조차, 야오이적인 시선을 대입시키며 즐거워한다. 즉,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성들은 기존의 질서를 전복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야오이에서 발견했고, 이제 그들은 수동적인 수용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생산자의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그것이 기존 야오이의 정형성에 질리고, 야오이의 비현실성을 비판하는 독자조차도 야오이의 세계에 빠져드는 이유가 아닐까?

Ⅲ. 연구를 정리하며

지금까지 우리는 여성들이 야오이물을 즐겨 읽는 현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여성들에 의해 형성되는 야오이 팬덤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측면을 집

84) 노말은 흔히 사회에서 정상으로 간주되는 ‘이성애’ 혹은 ‘이성애자’를 뜻하며, 야오이물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성애물을 ‘노말물’이라고 한다.

중적으로 조명하고자 노력했다. 야오이의 여성팬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그들의 상당수가 어렸을 때부터 만화에 익숙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연구대상자들의 대부분이 야오이를 자신들이 열광하는 만화의 한 장르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야오이가 실제와 동떨어진 '가상현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출발했다. 또한, 연구의 시작단계부터 줄곧 야오이가 여성의 장르임에 주목해왔다. 그것은 무엇보다 대부분의 야오이가 여성작가에 의해 생산되며 여성 수용자에 의해 향유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이 연구의 분석 역시 상당부분을 야오이가 '왜 여성의 장르인가'를 설명하는데 할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여성들이 야오이물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은 크게 '관음'과 '전복'의 차원으로 나뉘서 살펴보았다. 야오이 속 주인공들의 사랑과 성을 훑쳐보면서 얻게 되는 '관음'의 즐거움이 대중문화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를 해체하는 시선을 통해 충족되는 '전복'의 즐거움은 야오이만이 갖는 특성이자이다. 야오이 텍스트를 통해 획득된 여성들의 새로운 시선은 또다른 텍스트를 읽고, 쓰는 행위에도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여성만화팬들의 야오이물 읽기'에 주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야오이가 여성들이 세상과 텍스트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놓았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드러나듯이, 야오이의 여성팬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즐거움에 따라 팬덤 대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능동적 해독을 통해 팬들은 의미의 적극적 생산자 혹은 조작자가 된다. 또한 Jenkins가 지적한 바대로 야오이 팬들은 야오이 만화를 탐독함으로써 해당 장르의 정형화된 문법을 인지하게 되며, 이를 통해 그들은 점차 내러티브를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게 되었다. 특히 야오이 팬들의 경우 대부분이 여성만화의 매니아로서 상당수가 오리지널 혹은 패러디물의 창작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Fiske의 텍스트적 생산성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성팬들의 야오이물 수용의 적극성을 드러낸다. 즉, 여성만화팬들은 야오이물에서 획득한 즐거움을 능동적으로 이용하면서, 여성 고유의 하위문화를 형성하고 있다.